

대구주보

가정, 가장 가까운 교회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부활 제2주일(하느님의 자비 주일)** 2016.4.3.(다해) 제1992호



성건성당 제단 십자가 <사진 : 대구대교구 가톨릭사진가회>

† 오늘의 전례

“여드레 뒤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요한 20,26)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토마스는 자기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주님의 부활을 믿기 힘들어하는 현대인의 마음을 솔직하게 대변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보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하느님의 자비 주일’인 오늘, 우리의 약한 믿음을 굳건하게 해 주시기를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청해봅시다.

제1독서 사도 5,12-16 **제2독서** 묵시 1,9-11ㄴ,12-13,17-19 **복음** 요한 20,19-31.

입당송 갓난아이처럼 영적이고 순수한 젖을 갈망하여라.

너희는 그 젖으로 자라나 구원을 얻으리라. 알렐루야.

화답송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또는 ◎ 알렐루야.)

영성체송 네 손을 넣어 못 자국을 확인해 보아라.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알렐루야.



공동체를 지켜라

이상재 가스톨 신부 | 만촌3동본당 주임

하느님의 마음은 자비(慈悲)입니다. 자(慈)는 어미닭이 병아리가 아닌, 마음(心)을 품고 있는 형상입니다. 그 마음은 비(悲)와 같은 마음이지요. 비(非)는 새가 날개를 좌우로 벌린 모양인데, 무엇이 벌어지고 갈라지나요? 밑에 있는 마음이 그러합니다. 자비는 양쪽으로 찢어지듯이 아픈 마음을 포근히 감싸주는 하느님의 사랑을 일컫습니다.

다락방의 제자 ‘공동체’는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였습니다. 토마스도 ‘공동체’에 함께 있을 때 주님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주님의 자비는 공동체에서 체험됩니다. 주님의 현존체험도 또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마리아 막달레나도 주님의 부활체험을 공동체에 전달했습니다. 공동체는 체험의 장소요, 체험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천하장사 항우는 7년 동안 70번의 전투에서 한 번도 진적이 없습니다. 항우의 힘은 산(山)도 뽑을 만하니 당연히 그랬을까요? 하지만 아무리 항우라도 혼자서는 군대를 상대할 수 없습니다. 항우의 전투방법은 상대의 진형(陣形)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항우는 자신을 선봉으로 해서 강력한 기마대를 구성하여 상대의 진(陣)을 앞에서부터 뒤로 대나무를 자르듯이 쪼개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말(馬) 머리를 돌려 상대 진형의 옆구리를 좌우로 쪼개어 나갔습니다. 십자(十) 형태로 분열되고 흩어져버린 군대는 이미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펭귄들이 영하 45도의 추위와 초속 50m의 강풍 속에서 4달 동안이나 알을 지키고 목숨을 이어갈 수 있는 것도 딱 붙어 진형(陣形)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중심부의 온도는 20도 이상이라고 합니다. 안쪽에 있는 펭귄은 1분에 10cm씩 밖으로 나옵니다. 영하 45도의 제일 바깥에 있던 펭귄도 10cm씩 안으로 들어갑니다. 싫지만 10cm씩 밖으로 나오고, 급하지만 1분에 10cm씩만 안으로 ‘천천히’ 들어가는 그들의 희생과 배려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러기는 V자 편대 비행을 통해 40,000km의 거리를 날아갑니다. 순서대로 앞자리로 가고, 뒷자리에서는 기합을 넣으면 71%정도 쉽게 날 수 있게 됩니다. 한 마리가 다치면 다른 두 마리가 함께 내려 후에 3각 편대를 이루어 동료의 뒤를 따릅니다.

부활 2주일,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하고 싶다면 본당 공동체를 지키십시오. 약하고 느리고 시력마저 형편없는 양들이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능력 없기는 마찬가지였고, 어차피 시간은 ‘나는 것이 아니라 ‘내는 것’입니다. 따뜻하다고 안에만 있으면 다 죽습니다. 세상이 항우의 기마대처럼 돌진해옵니다. 펭귄에게서, 기러기에게서 생존의 비법을 배우는 지혜로운 부활절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궤문**

찬미받으소서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신종호 베네딕도 신부 | 정평본당 주임

울창한 숲에 가면 많은 나무들과 그 아래 살아가는 또 다른 무수한 생명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흙은 그 모든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죽은 생명을 품어 주고 순환시켜 줍니다. 그래서 건강한 흙은 참 향기롭습니다. 우리는 재의 수요일에 들은 권고처럼 향기로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것을 남기지요. 수십억 년 지구의 역사에서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들로 인류가 이 지구에 새로운 지층을 만들고 있다는 슬픈 이야기도 있습니다.

도시 생활은 참 편리합니다. 용변을 보고 버튼을 내리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고 지저분한 것들은 봉투에 담아 내어놓으면 새벽마다 수거하시는 분들이 거둬 가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잊어버리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이 없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또 어딘가에 산더미처럼 쌓이고 묻혀서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우리 후손의 발밑 흙 속에는 여전히 향기롭지 않은 그것이 묻혀 있겠지요. “우리의 집인 지구가 점점 더 엄청난 쓰레기 더미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회칙 『찬미받으소서』, 21항)

공기가 오염되고 이상 기후가 나타나서 폭우나 가뭄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물이 오염되고 충분하지 않아 안전한 식수에 접근할 수 없다면, 그 피해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먼저 닥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버리는 문화와 밀접히 관련됩니다.”(회칙 『찬미받으소서』, 22항) 어디서든 많이 소비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부추기는 광고를 만납니다. 부자 되라고요. 쉽게 사용하고 쉽게 버리라고 부추깁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그것이 참 자연스러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쓰고 버리는 것이 자연스러우면 사람도 쓰고 버리는 일이 자연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이 지금 여기에서 벌어진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될까요?

사실 우리 주위를 되돌아보면 사람을 쓰고 버리는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요? 그런 현상이 자연스러워지면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돈이 보입니다. 사람이 우선이 아니라 돈이 우선이 되어 버리고 말지요. 참된 행복이 사람 사이에, 하느님과의 만남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과 다른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쉽게 쓰고 버리지 않는다는 것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불편한 것을 당연한 즐거움으로 삼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느님과 가까이 있음을 깨닫게 되지 않을까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읽어 보시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소공동체 모임이나 단체 모임에서 우리의 공동의 집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서로 얘기를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직시하는 데서 문제는 풀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필문**

신앙, 세상에서 하느님을 만나기 위한 두려움과 설렘

한승호 베드로 신부 | 월성본당 보좌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것은 설레지만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전에 해왔던 익숙한 것을 끝내야 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끝내지 못하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면 늘 마음에 미련이 남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점점 더더집니다. 그래서 매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스스로 결단하고 내가 선택한 것을 올바르게 받아들여려면 ‘뺏고’ ‘풀어내는’ 용기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 자신의 선택에 대해 매번 후회하고, 어쩔 수 없이 선택된 삶을 살아야 하는 고뇌를 겪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신앙도 이와 비슷합니다. 내가 하느님을 찾기 이전에 하느님이란 분이 계셨고, 그분이 먼저 나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또한 그분 말씀에 따라 잘 사는 길인지를 배워갑니다. 그 결과 우리는 윤리적인 가르침도 배우고 어린 시절부터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는 기도법과 예절에 익숙해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작한 신앙생활이 언제부터인지 불편하고 피로감에 빠지고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순진했던 어린 시절의 신앙은 점차 사라지고 하느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일보다는 세속의 일이나 여가생활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게 살다보니 교회의 가르침이 거북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가끔은 하느님 모르게 딴 짓

도 하고 싶어집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하느님이 정말로 계신지 의문이 들고, 하느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부럽기도 합니다. 결국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길은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사는 것만은 아니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신자로서 교회가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의무들을 신앙생활의 중심에 두는 데 익숙합니다. 주일미사에 참석하는 것, 일 년에 두 번 판공성사를 보는 것, 교무금과 헌금을 내고, 가끔 교회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면 시간을 내서 봉사하는 일 정도면 신자로서 평균은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법적으로 요구하는 최소한의 의무에 갇혀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분명히 그런 의무를 넘어서는 더 큰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매력은 하느님을 만나는 두려움과 설렘의 교차로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일에 빠져 하느님 없이 살 때는 모르지만, 문득 하느님을 떠나 살 때 느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되어 내 삶의 바닥을 느낄 때 우리는 다시금 하느님이 내 인생을 다시 잡아주실 지도 모른다는 설렘을 안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신앙인 여러분, 신앙은 내가 겪는 인생의 어두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꽃피는 설렘과 매력이 있습니다. **필문**

햇볕 한 줌

아름다운 사랑과 용서

결혼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이웃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집 안방에서 화장대에 놓인 커다란 진주 반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나 예뻐라.” 한순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아내는 그만 반지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오후, 이웃집 아주머니는 반지가 사라진 것을 알고 틀림없이 그 젊은 신혼부부 아내가 범인이라 생각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다짜고짜 아내에게 찾아와 반지를 내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내가 아니라고 발뺌을 했지만 이웃집 아주머니는 “안방에 들어온 사람이 우리 식구랑 새댁밖에 없었는데도 거짓말이야?”라며 몰아세웠습니다.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퇴근하고 돌아 온 남편이 그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왜 제 아내에게 그런 누명을 씌우는 겁니까? 저는 제 아내를 믿습니다. 그러니 돌아가 주십시오.”

남편의 강직하고 단호한 목소리에 경찰은 물론 이웃집 아주머니도 할 말을 잃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안정을 취하도록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잠이 들자 전날 밤 화장대 서랍에서 보았던 그 반지를 꺼내 들고 조용히 이웃집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반지를 건네며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내가 순간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아내와 저는 한마음이고 한 몸입니다. 그러니 아내의 잘못은 제 잘못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저를 벌해 주십시오.”

남편의 진실한 사랑에 감동한 아주머니는 말없이 남편을 돌려보냈습니다. 몰래 뒤따라왔던 아내 역시 남편의 행동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의 강한 믿음과 깊은 사랑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아내는 다음 날 동이 트자마자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깊이 사죄했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가 아내의 손을 지긋이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새댁이 부럽네요.”

남편의 그 큰 사랑이 아주머니에게는 잘못을 용서하고 포용하는 마음을, 아내에게는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자세를 선물했던 것입니다. **빛물**

교구장 동정

■ 부활 성야 미사



부활 성야 미사가 3월 26일(토) 오후 8시 30분 계산주교좌성당에서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의 주례로 봉헌되었다.

■ 예수 부활 대축일 미사



예수 부활 대축일 미사가 3월 27일(일) 오전 11시 통합의료진흥원 전인병원 대강당에서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의 주례로 봉헌되었다.

사진제공 : 월간 <빛>

교구 행사

- 4.3(일) _ 학생 주보 기자단 월모임(무지개 11시/새새땅 14시, YHY청소년센터)
YHY 청소년 봉사 동아리 '반하나' 월모임(15시, 성 토마스 청소년 시범 본당)
- 4.6(수) _ 평신도위원회·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연석회의(19시 30분, 전인병원)
- 4.7(목) _ 소공동체위원회 및 소사모 월례회(11시, 교구청 별관 3회합실)
- 4.9(토) _ 노인사목 세미나(14시, 대신학원 대강당)
32기 성요셉 아버지학교 5주차 가족피정(10일까지, 연화리 피정의 집)

소식

■ 고(故) 김수환 추기경 추모 공원 및 전시관 설립

대구대교구에서 군위군과 함께 고(故) 김수환 추기경님 추모 공원 및 전시관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교구내외 신자분 중에서 김수환 추기경과 관련된 자료(문서, 박물, 사진 등)를 기증하실 분들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해주시시오. 문의: 교구 관리국, 250-3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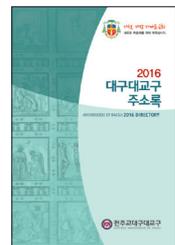
■ 2016 대구대교구 주소록 발간

2016년도 대구대교구의 새주소록이 발간되었습니다.

사제단 명부 및 주소, 본당, 평신도위원회 및 제단체, 교구 산하기관 등의 최신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판매가: 5천 원(609쪽) / 구입문의: 교구 문화홍보실, 250-3047~9

※ 올해부터 교구 주소록은 2년에 한 번 발행됩니다.



⑥ 부활 제2주일(하느님의 자비 주일)

미 사 안 내

경주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4월 4일(월) 11:00 성동성당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4월 4일(월) 19:30 꾸르실로 교육관
말말회 및 시각장애인 선교회 월례미사	4월 4일(월) 11:00 계산성당	1대리구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4월 6일(수) 11:30 계산성당
포항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4월 4일(월) 11:00 죽도성당	경주지역 학교복음화미사	4월 6일(수) 19:00 용강성당

성소 | 피정

예수회 4월 성소 모임

일시: 4.9(토) 14:00
 장소: 한국관구(서강대 옆)
 문의: (010)6245-1608

<http://vocation.jesuits.kr>

성베네딕도회 4월 성소 모임

기간: 4.9(토)~10(일)
 장소: 왜관 수도원 본원
 (경북 칠곡군 왜관읍 관문로 61)
 문의: (010)8353-2323
 연락 후, 수시로 방문견학 가능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4.10(일) 14:00
 장소: 부산 본원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미혼 여성
 문의: (010)9319-1690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4.10(일) 14:00
 장소: 대구가톨릭근로자회관 경당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여성
 문의: (010)5033-9302
<http://www.columban.to>

해바라기 성소 모임

일시: 매달 셋째주 주일
 장소: 성모당 내 가톨릭여성교육관
 대상: 37세 이하 미혼 여성
 주최: 올리베타노 성 베네딕도수녀회
 문의: (010)9510-1131

가정성화를 위한 꽃동네 성령 피정

기간: 4.16(토) 11:00~17(일) 16:00
 장소: 음성꽃동네 사랑의 영성원
 회비: 5만 원(어린이 동반금지)
 문의: (010)5490-5345

제46차 신약성경 통독 피정

기간: 4.22(금)~24(일)
 장소: 루하피정센터(오순절평화의수녀회)
 문의: (010)3758-3572, 홈페이지 참조

제주도 성이시들 자연 피정

올레, 한라산, 미사, 기도, 강의
 기간: 4.11~13 / 4.15~18 / 4.20~23
 4.25~27 / 5.2~4 / 5.6~9

대상: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문의: 성이시들피정의집, (064)796-9181

기도와 침 피정-소울 스테이

기간: 4.23(토)~24(일) / 6.11(토)~12(일)
 7.2(토)~3(일) / 9.9(금)~11(일) 2박 3일
 장소: 연화리피정의집 / (054)973-4835

교육 | 모집 | 기타

나를 찾는 에니어그램

일시: 4.23(토) 10:00~16:00
 대상: 청년, 개인, 가족, 단체
 주최: 군위 소보동시
 신청: (010)2649-2045

살레시오 여름신앙학교

일시: www.fmayouth.or.kr 참조
 장소: 광주광역시 청소년수련원
 대상: 초3~초6
 문의: (062)373-0942
 (010)8621-0940

바틀로교육센터 초·중·고 여름 신앙캠프

기간: 중고등부 7.25(월)~30(토) 1박 2일,
 3차 / 초등부 8.1(월)~6(토) 1박 2일, 3차
 신청: 본당별 선착순 30~40명
 회비: 5만 5천 원 (냉방비 별도)
 문의: 783-9817 / (010)9868-9817

대구가르멜여자수도원 재건축 후원자 모집

교회를 위한 저희의 기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재건축을 위해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청합니다
 후원: 대구은행 504-10-137072-9
 문의: (010)3375-4408

성모발현성지순례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
 출발일: 2016년 8월 29일 (13박 14일)
T. (053)253-3399
 (주)성지여행 조 힐 레(유스티노) 흠 비 회(안젤라)

미소인치과
 원장 이 중 현(프란치스코) 송 선 희(안나)
 지하철 범어역 4번 출구
 전화상담 053)752-7575 **환자**
www.misoindental.com **하얀진료**

밝은눈안과
 원장/전문의 임홍식(라파엘) 장주희(헬레나)
백내장수술전문병원
달성고 맞은편 654-9660
 지하철2호선 두류역(9번출구)앞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보건복지부 인공의료기관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장 효 원(요셉) 신부
TEL 053)615-4871

(주)한투어 성지순례전문
 한투어
 6월 3일 산티아고 도보순례 (출발확정) 및 성모발현지(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이탈리아, 발칸 성지순례 모객 중
☎ 053-427-7090
 안 요한, 김 마리아막달레나
<http://www.hantourcatholic.com>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열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코), 박필교(율리안나)
☎ (053)255-9077
010-9447-5193

HNT 하나투어
(주)이시아투어&(주)김스여행
 2016년 대회년 자비의회 선포기념 이태리 일주(로마방문) 9일
 출발일: 6월 27일
☎ 053-956-8888
 대표이사 김천훈(아우구스티노) 김경숙(글로리아)

코리아알트만 대구은행역 범어네거리 1번 출구
 결론영보외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틸리아)
 국민은행 ● 대구은행 본점
 코리아 알트만 (4F)
 지하철 2호선 대구은행역 2번 출구 국민은행 옆 KCC 인터리어 건물 4층
TEL 743-4488 FAX 744-1594

행사 | 모임

에밀 따케 신부의 왕벚나무 컨퍼런스

일시: 4.4(월) 14:00, 남산동 신학대학
주최: 대가대 사회적경제대학원
문의: 850-2606

2016 대구성령대회

일시: 4.16(토) 10:00~18:00
장소: 월막피정의집(대구성령봉사회관)
주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마태 9.27)
강사: 이로나 스피다로(Ironi Spuldaro)
문의: 대구성령봉사회, (054)954-0951

교육 | 모집

3기 성모마리아 어머니학교 개설

기간: 4.21~5.26(매주 목, 9:30~14:30)
※5.5일(목)은 어린이날로 인한 휴강
장소: 구미 옥계성당 / 10만 원
대상: 가족을 사랑하는 모든 어머니
문의: 교구 가정담당, (010)6499-3114

대구ME주말-가정, 가장 가까운 교회

340차 ME주말: 4.22(금) 19:00~24(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문의: 983-0521
부부는 작은 교회입니다

프란치스카눔 교육생 모집

과목: 발성법, 가곡교실, 성가반주법
장소: 프란치스카눔
문의: (070)4266-0047

4월 지성인을 위한 토요신앙특강

일시: 4.16(토) 10:00~12:00
장소: 대구가톨릭대 신학대학(남산동)
주제: 김청자의 아프리카 사랑
강사: 김청자(아네스) 교수
문의: 평신도신학교육원, 660-5105~6

무학연수원 가족캠프 참가자 모집

1차(부부캠프): 5.7(토)~8(일)
2차(가족캠프): 5.14(토)~15(일)
3차(가족캠프): 5.28(토)~29(일)
자세한 사항은 무학연수원카페 참고
<http://cafe.daum.net/jeonwhasoo>

민남현 수녀와 함께하는 바오로딸 특강

일시: 4.9(토) 19:30
장소: 바오로딸 서원(동성로)
주제: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러브스토리
문의: 425-5185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프로그램

2박 3일: 4.8(금) 17:30~10(일)
8박 9일: 4.18(월) 14:00~26(화)
이냐시오: 4.8(금) 17:30~10(일)
문의: (031)946-2337~8

예수성심전교수녀회 청년MSC 모집

예수마음을 배우며, 살고 싶은 젊은이
대상: 40세 이하 남녀 청년들
(미혼, 기혼)
다음카페: 어둠을 밝히는 사람들
문의: (010)9330-3104 / (010)4203-3217

대구가톨릭대 평생교육원 모래놀이치료

대상: 만 3세 이상에서 성인까지
모래놀이상담사 과정에 관심있는 분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학교, 유치원)
문의: 김용희, (010)4096-2296

채용 | 안내

내당성당 여사무원 채용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마감: 4.9(토)
문의: 사무실, 558-4411

각산성당 사무장(여) 채용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자격: PC, 엑셀업무 가능자
문의: 2대리구청, 743-7010

(주)매일상조 영업사원 채용

천주교대구대교구에서 출자하고
매일신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매일상조에서 함께 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 문의: 427-4400

노인요양원 입주자, 요양보호사 채용

입주자격: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
채용: 요양보호사 0명(직원 증원)
문의: 파티마홈, 324-1188

교구 법원 공시(253-9550)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하은영

목조전원주택 분양/시공



21C 주택산업
이정수 마리아
경산조피경사정문 앞

(053)817-0322 | 010-2624-0322

since 1999
성모아이한의원

감기졸임/성장(식욕부진·수면장애)/아토피/야뇨
소아간질(경기)/틱·ADHD/발달장애

한 의 학 박 사
동국대학의학과 외래교수 **김성철(비오)**

대표번호 **1588-3386**

대구 범어역 3번 출구 애플타워 8F
서울 강남역 5번 출구 강남메디타워 4F

U&I

유엔아이 결혼정보

053)795-2211 · 010-6572-2233

신매역 5번 출구 (사월 방향 500m)
제일병원 옆
김경임 (아네스)

결혼정보회사

마리아 요셉 결혼이야기
(초혼/재혼)

전국대표전화 1566-6205

대구 070-4790-3888 부산 051)817-3885~8
서울 02)579-3889 · 02)3141-3888
<http://www.mjms.co.kr> / 대표 김순자 (마리아)

신앙과 함께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대구정신병원

원장 신홍식(루가) 신부

T. (053)630-3000~1

지역사회 최초
보건복지부 “정신의료기관 인증” 획득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익스프레스

포장이사·사무실이사

대표 양말순(루시아)

591-2424 · 656-9911
010-2008-2329

개원 30주년

달성피부과

BF PNT영양치료실/화상,흉터클리닉
1F 아토피센터/대상포진통증클리닉
2F 오프토피스킨케어/여드름클리닉
3F 레이저/보톡스/리프팅 동안센터

확장개원

원장 손재경(다미아노) 김인주(레지나)

7호광장 두류역 2번출구 ☎ 566-4333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 길!

수성성당 연도실

기도와 실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016-518-2223
010-8345-9479

위령회장 이주석 요셉